

# 칼빈의 教育活動과 그 意義에 關한 研究

姜 勇 元

(본 연구소 연구원)

- 
- I. 序 論
  - II. 칼빈의 教育活動의 內容
  - III. 칼빈의 教育活動의 意義
  - IV. 結 論

## I. 序 論

### 1. 問題의 陳述

요한 칼빈(John Calvin)은 위대한 宗教 改革者이며 長老敎의 先驅者이다. 많은 사람은 그의 思想을 世界史 속의 精神的이며 靈的인 革命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宗教改革者 칼빈 혹은 神學者 칼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좀더 內面的인 그의 生活을 깊이 研究하여 보면 그를 그렇게 偉大한 改革者나 神學者로 만든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호르고 있었던 牧會者的인 사랑과 情熱이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며 그의 牧會者的인 사랑과 情熱은 教育活動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그가 아무 곳에서도 教育에 대한 그의 思想을 組織的으로 論理的으로 表現하고 있지는 않다 해도 그는 여러 곳에서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했고 실제로 教育을 實踐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된다. 더욱 興味로운 것은 그가 宗教改革을 위해 努力하면서 教育을 그 道具로 삼았다는 점

이다. 本稿에서 筆者는 칼빈의 宗教改革속에 나타난 教育活動을 살펴보고 그 意義를 밝혀 보려고 한다. 칼빈의 教育活動은 長老敎 教育의 源형을 찾아 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칼빈의 教育活動이 지닌 意義는 오늘날 새로운 基督教 教育의 根據와 展望을 밝게 해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칼빈의 宗教的 改革運動 속에 沈澱되어 있는 教育改革의 意味를 發掘해 내려는 것이 이 論文의 目的이며, 그의 理念을 오늘의 時代에 새롭게 理解함으로써 오늘의 教育의 새로운 展望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 2. 問題의 要素

本稿는 論題에 관한 研究를 進行함에 있어서 칼빈의 教育活動의 內容을 問題의 첫번째 要素로 삼고 칼빈의 教育活動의 意義를 두번째 要素로 삼는다. 첫번째 要素 속에서는 칼빈이 改革活動을 하는 중에 어떤 教育的 努力을 하였는가에 主眼點을 두며, 두번째 要素에서는 그의 教育活動에 나타나 있는 뚜렷한 強調點을 찾는데 그 主眼點을 둘 것이다.

### 3. 關係文獻 研究

우리 나라에서 칼빈의 教育活動에 대한 研究는 集中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우 皮相的이고 단편적인 자료들이 산재하고 있을 뿐이다. 칼빈의 教育과 관련된 碩士學位論文은 참고문헌에 나타나 있는 延世大學 敎育大學院에서 나온 두 편의 논문이다. 한편은 루터의 教育思想과 칼빈의 教育思想을 비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칼빈의 教育思想이 서구 근대 사회의 資本形成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이다.

### 4. 用語의 定義

本稿에서 使用하고 있는 “教育活動”이라는 用語는 실제로 가르치는 行爲만을 말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教育的인 意圖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教育的인 貢獻과 관련지어질 수 있는 活動을 나타내기로 한

다. 그러므로 이 教育活動 속에는 教育을 爲한 著述, 教育을 위한 行政의 뒷받침, 學校의 建立 등이 포함된다.

## 5. 研究方法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전적으로 文獻研究에 依存한다. 칼빈의 著述 중에서 「基督教綱要」(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와 「神學論文集」(Theological Treatises)을 주로 참고하고 그 외의 칼빈과 관련된 여러 文獻을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칼빈의 教育과 관계된 文獻 중에서 드용(Peter Y. De Jong)의 論文 「基督教 教育에 끼친 칼빈의 貢獻」(Calvin's Contribution to Christian Education)은 本 論文을 作成함에 있어 방향 설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 II. 칼빈의 教育活動의 內容

### 1. 칼빈의 教育活動의 背景

#### 1) 칼빈의 成長과 教育

칼빈은 아직도 전 유럽이 정진적으로 로마천주교의 지배를 받고 있던 1509년 7월 10일 파리 東北方 60마일 지점에 있는 노온(Noyon)에서 제랄코반(Gérard Cauvin)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出生하였다. 칼빈은 어려서부터 非常한 素質을 나타내었고 12살되던 해에는 그곳 敎會의 神父를 補助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1523년부터 파리大學에 있는 말세대학(Collège de la Marche)에서 코디에(Mathurin Cordier)에게 라틴어를 배웠고 그후 몬테이구(Montaigu)대학에서 聖書와 스콜라主義를 배웠다. 1527년 칼빈은 갑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工夫하는 分野를 變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敎權者들과 衝突하게 되어 자기 아들을 神父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法學을 工夫시킴으로 世俗的인 分野에서 成功케 해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그는 1527년 가장 뛰어난 法學

大學이 있는 오르레앙(Orleans)으로 가게 되었다. 칼빈이 人文主義者로서 學問을 研究하고 敎養을 쌓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오르레앙에는 法律을 가르치는 여덟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著名한 이는 피에르 드 레스토일(Pierre de l'Estoile)이었다. 그는 法律解說을 맡고 있었는데 칼빈에게 持續力 있는 印象을 주었다<sup>1)</sup>. 칼빈이 오르레앙을 떠날 무렵 베리(Berry) 지방의 왕비 딸그리트(Marguerite de Navarre)는 많은 人文主義者들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들의 活動中心地는 보르제대학(University of Bourges)이었다. 1529년 보르제대학은 유럽에서 名望이 높았던 法學者 앙드레 알세(Andrea Alciati)를 이태리에서 招請하였고 오르레앙대학에서 칼빈에게 회람어를 가르쳐준 볼마르(Wolmar)도 함께 招請하였다. 이와 같이 보르제대학이 새 學問의 中心을 이루고 있을 때 칼빈은 여기에 籍을 두었다. 1531년 5월 그의 父親이 別世하자 이제까지 부친의 지시를 따르던 칼빈은 그가 원하는 工夫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칼빈은 다시 파리에 돌아와서 古代言語와 古典을 研究하였다. 그때 그는 로텔담의 위대한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를 본받아 人文主義 學者가 되려고 하였다<sup>2)</sup>. 칼빈이 人文主義者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32년 「세베카의 寬容論 註釋」(Commentary on the De Clementia of Seneca)을 執筆한 후였다. 칼빈은 이 글에서 자신의 卓越한 天賦的인 재능을 유감없이 發揮하였다. 칼빈은 세베카의 주석에서 이태리 人文主義者 발라(Valla), 에라스무스와 부메(Budé)가 수행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文章을 驅使하여 자신의 박학한 지식을 나타냄으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sup>3)</sup>.

이와 같은 그의 成長과 教育은 훗날의 그의 生의 方向을 많이 결정지어 주었는데 그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p. 198.
- 2) T. H. L. Parker, *Portrait of John Calvin*, 김재준역, 칼빈의 모습(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5), p. 10.
- 3) Franc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s of Hi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 27.

첫째로, 칼빈은 人文主義 教育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란서 人文主義者들과 넓게 교제하여 人生과 學問을 넓힘으로써 훗날 그가 「基督教綱要」를 집필할 때 풍부한 古典에 관한 知識을 인용할 수 있었다. 그의 폭넓은 古典語와 人文과목, 聖書, 法律 등의 知識은 후에 聖書研究와 講解등을 통한 教師로서의 뛰어난 能力을 발휘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칼빈이 人文主義教育을 강조한 것도 이것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둘째로, 칼빈은 法學工夫를 통해서 후에 제네바시의 神政政治를 위한 資質과 準備를 닦았다.

셋째로, 칼빈은 그의 부친이 敎權者에게 끝까지 屈服하지 않고 싸우다가 別世한 것을 통해 깊은 印象을 받았고 그의 鬪爭精神에 힘을 더하였다.

이러한 그의 成長과 教育을 토대로 칼빈은 「基督教綱要」와 성경주석의 저술을 남겼으며 1536년부터는 그의 모든 生涯를 제네바의 宗教改革에 힘썼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네바改革 속에 나타난 칼빈의 教育活動의 面貌는 153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基督教綱要」에서 그 神學的 背景을 볼수 있으며 제네바改革에 관계된 文書를 수록한 「神學論文集」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2) 제네바 改革의 歷史的 背景

칼빈이 活動을 시작할 즈음, 독일과 스위스의 宗教改革運動은 그 열도가 차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이미 宗教改革이 시작된지 10년이나 지나 차츰 루터를 중심한 新敎勢力이 형성되어 가다가 마침내 1530년 6월 25일 아우구스부름(Augsburg)에 모여 信仰告白을 선포함으로 新敎勢力의 기반은 견고하게 되었다. 한편 스위스는 쾰리히(Zürich)를 中心으로 쓰빙글리(Zwingli)에 의해 改革이 進展되고 있었으나, 1531년 11월 21일 그가 戰死하자 改革의 불길은 베른(Bern)시로 옮겨가게 되었다. 제네바의 改革運動을 최초로 주도한 화렐은 베른에서 파견나온 설교자였다.

또한 칼빈이 活動을 시작하기 직전인 1536년 7월 11일에는 人文主義의 王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가 숨을 거두었고 같은 해에 불란서 人文主義運

動의 선구자인 루후에부르(Lefevre d'Étaples)도 긴 생애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고 칼빈이 歷史의 무대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의 관용론 주석을 쓴 후 얼마 안 되어 福音主義者들과 사귀게 되었고, 1533년 11월에는 친구 니콜라스 곱(Nicholas Cop)의 파리대학 학장 취임연설을 福音主義的으로 써줌으로 교편자와의 투쟁과 그의 방랑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칼빈의 教育活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의 제네바의 狀況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칼빈이 제네바에 到着한 1536년은 칼빈 한 사람의 生涯만이 아니고 불란서와 스위스의 宗教改革에 한 轉換點을 찍은 해였다<sup>4)</sup>. 確實한 날짜는 알수 없으나 1536년 초여름의 어느날 칼빈은 바젤시로 가던 도중 제네바에 들려서 쉬고 다음 날 떠나려고 하였으나 그때 제네바에서 改革運動을 推進하고 있던 화렐(Farel)에게 불들리고 말았다. 화렐은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것을 듣고 그의 숙소에 까지 찾아와서 제네바의 宗教改革 運動을 도와 줄것을 要請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자기의 내성적인 性格이 그런 事業에 맞지 않는다고 辭讓하였으나 끝내 降伏하고 말았다. 1536년의 제네바는 이미 改革되어지고 있었다. 인구 약 1만3천명을 헤아리는 제네바에는 신교사상이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하여 1535년 8월 10일 제네바 市議會는 로마교회의 미사의식을 廢止하기로 결의하였고 1536년 5월 21일에는 시민총회에서 福音主義的 信仰을 따를 것을 誓約하였다. 이 제네바 改革의 重要한 活動家는 베른에서 派遣나온 說敎者 화렐이었다. 화렐은 1532년 제네바에 그의 친구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들어갔다. 그는 激烈한 說敎를 감행하여 市民들의 感情에 刺戟을 주었으나 反對派의 敎唆로 제네바를 쫓겨난 일도 있었다. 그러나 화렐은 다시 제네바에 돌아왔고 1534년 3월 1일 제네바市 當국으로부터 說敎權을 얻을 수 있었다. 1535년 5월부터 6월까지 친구교간의 神學 討論會가 있었는데 신교 代表인 화렐이 勝利함으로 제네바는 점점 신교도시로 변해갔고 화렐의 끊임없는 說敎로 1536년 5월 시당국은 화렐의 제네

4)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성광문화사, 1977), p.147.

바 宗教改革을 公認하였다. 이것은 화렐의 不死鳥와 같은 不屈의 意志와 聖書的 信仰의 열매로 얻은 것이었다<sup>5)</sup>.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眞正한 改革의 出發에 불과하였다.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기 잘하는 제네바 시민들의 마음을 知的이며 靈的인 改革信仰의 知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sup>6)</sup>. 아직도 제네바의 宗教改革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이 가로 막혀 있었다. 市民들의 倫理生活은 극도로 거칠어진 狀態에 있었고 제네바시는 粗野한 道義生活, 法에 대한 輕蔑, 殘忍性이 支配하고 있었다. 제네바 市民 가운데는 信仰的 動機보다는 政治的 動機로 宗教改革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은밀한 로마교 信者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sup>7)</sup>. 이런 어려운 環境속에서 화렐은 改革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난관을 克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화렐은 情熱的인 說教者였으나 훌륭한 組織家는 못되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強力한 組織力을 가진 사람의 協力이 必要했던 것이다. 이런 重大한 시기에 칼빈은 제네바에 派送된 것이다.

칼빈의 제네바 活動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536년부터 1538년까지이며, 둘째 시기는 그가 제네바에서 追放되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1541년부터 그가 臨終한 1564년까지이다.

### 3) 教師로서의 칼빈

칼빈은 教育思想을 정립한 教育學者는 아니었으나 教育 實踐家로서는 目的한만한 位置를 차지한다. 칼빈이 제네바 시에서 가진 最初의 職務는 성 메트로 敎會에서 聖經을 가르치는 教師의 職務였다. 칼빈은 그의 著書인 「基督敎綱要」의 “讀者에게 드리는 글”(1559)에서 자기 자신의 지나간 生을 教師로서 表現하면서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5) *Ibid.*, pp. 148-153.

6) Peter Y. De Jong, "Calvin's Contribution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p. 169.

7) 허순길, "칼빈연구", 미스바, 2호(1974. 11), pp. 40-41.

“敎會에서 教師의 職務를 맡은 후 純粹한 敬虔의 敎理를 維持함으로 敎會의 有益을 위한 일 이외에 다른 目的을 나는 것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나의 良心은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과 天使들을 證人으로 가지고 있다”<sup>8)</sup>.

칼빈이 자신을 教師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教育的 측면에서 그를 살펴본다면 그는 徹頭徹尾 教師로서의 一生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그의 教育者로서의 삶을 營爲하는 동안에 가르치기 위한 教材 著述을 통하여 神學者의 이름을 얻었고 가르치는 실제 活動을 통하여 說教者의 평을 받았으며 教育이 效果있게 實現되고 나아가서 그가 가진 教育의 完成을 위한 努力을 통하여 政治人으로서의 力量을 發揮하였던 것이다<sup>9)</sup>.

칼빈은 市民들에게 聖經을 강해하는 說教者의 직무를 誠實히 수행하였다. 그의 설교는 聖書에 임각한 聖書的인 설교였으며 講解的인 설교였고, 實生活과 유리되지 않는 實存的인 설교였다<sup>10)</sup>. 칼빈은 또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敎育사업을 계속하였고, 여러 政治條例를 發表하여 市民의 宗教的 倫理的 生活을 規定하여 市民敎育과 市民訓練을 힘썼다. 더우기 그는 제네바대학을 建立함으로 그의 教育活動의 “冠”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그의 教育活動의 面貌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 제네바 議會文書를 통해본 教育活動

비록 칼빈은 敎育에 관하여 루터 만큼 뚜렷하지는 않아도 그가 提出한 제네바議會의 文書들은 그의 敎育에 대한 見解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1)</sup>. 敎育活動과 관련지을 수 있는 文書들은 「信仰告白書」(Confession of Faith, 1536), 「敎會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條例」(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1537), 「敎會憲法」(Ecc-

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p. 4. ‘以下 John Calvin, *Institutes*

9) 노의일, “칼빈의 敎育사상이 서구 근대사회의 自本형성에 미친 영향”(미간행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敎育대학원, 1974), p. 39.

10) 한경직, “목회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기념 논문집(1965.5), p. 26.

11) J. Donard Butler,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1962), p. 40.

lesiastical Ordinances, 1541), 「순회規則」(Order of Visitation of the country churches, 1546), 「教會의 監督을 위한 法律」(ordinances for the supervision of church in the country, 1547) 등이 있다. 여기서는 重要하게 생각되는 앞의 세 가지 文書만 다루어 보겠다.

### 1) 「教會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條例」

칼빈은 1536년 초여름(6월 하순경) 제네바에 到着하였다. 그는 最初에 제네바에서 奉仕하겠다는 計劃이 도무지 없었지마는 화렐의 強力한 警告와 要請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물러 改革事業을 돕기로 決心한 것이다. 칼빈이 화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課業은 제네바 市民을 깊은 宗教改革의 原理로 引導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強力한 秩序가 必要하다는 것을 칼빈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教會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條例」(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Eglise)를 草案한 것이다. 이 條例는 1537년 1월 16일 市議會에서 通過되었는데 이 文書는 칼빈의 宗教改革의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서 훌륭한 歷史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 條例에는 크게 네 가지 問題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勸懲을 통한 訓練, 둘째는 詩篇의 讚頌, 셋째는 子女의 教育問題, 넷째는 婚姻에 관한 것이다. 이 條例의 內容에는 神政思想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특히 聖餐執行에 대한 內容이 그 核을 이루고 있다. 칼빈은 이 聖禮가 거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強力한 勸懲이 必要不可缺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條例에는 이와 같은 勸懲을 통한 訓練을 비롯하여 진술한 바와 같은 네 가지 內容이 다루어지고 있다. 칼빈은 生活의 純潔이 勸懲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教育을 통해서도 促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고<sup>12)</sup> 세번째 條에서 다음과 같이 子女의 教育問題를 다루고 있다.

“세번째 條例는 어린이들의 教育에 관한 것인데 어린이들도 역시 教會에 대해 그들의 信仰을 告白하여야 한다. 이 目的을 위해서 옛날에는 一定한 要理問答이 基督教의 基本的인 것들을 體得하는데 使用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

12) 허순길, *op. cit.*, pp. 42-43.

람이 그의 基督教을 선포하는데 使用할 수 있는 證據의 形式이 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이 요리문답으로 個別的인 教育을 받아 그들이 洗禮받을 때에 證據할 수 없었던 믿음을 教會앞에서 證據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聖經이 信仰과 告白을 결부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聖經은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敎援에 이르기 위하여 입으로 告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만일 이 規程이 언제나 適切하고 妥當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오늘날 어느 때 보다는 더 必要한 것이다. 우리는 大部分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等閑히 하고 하나님의 教會속에서는 전연 容納되어 질 수 없는 未開性과 無知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提案하려는 制度는 다음과 같다. 基督教 信仰의 簡潔하고도 單純한 要約을 作成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일년의 일정한 절기에 牧師앞에 나와 問答을 하고 試驗을 받으므로 자기의 能力에 따라 充分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認定될 때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諸位는 父母들을 명하여 忍耐와 勸勉으로 저들의 子女들로 하여금 이 要約을 배우게 하며 지정된 시기에 牧師들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sup>13)</sup>

비록 이 文書는 칼빈의 초기 文書이지만 子女教育의 必要性에 대한 그의 꿈이 매우 鮮明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文書는 제네바 教會에서 教育이 차지한 位置를 理解하는데 대단히 重要한 役割을 하는 文書로 注目되고 있다. 이 文書에서 칼빈은 教育을 통한 教會改革의 실마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요리문답 교육을 重視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모의 책임등을 強調하고 있다.

### 2) 「教會憲法」

칼빈이 제네바에서 追放당한 후 3년간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價値있는 經驗을 갖는 機會였다. 그동안 칼빈은 스트롬(John Strum)과 부셔(Martin Bucer)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칼빈은 부셔로부터 教會規則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칼빈이 作成한 「教會憲法」은 대부분이 부셔로부터 그 靈感을 얻은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스트라스부스의 몇 해는 앞에 놓여 있는 제네바에서의 그의 生涯의 일을 위한 價値있는 準

13)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with Instructions and Notes by J.K.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proposed by the Ministers at the Council, January 16, 1537”, p. 54. (以下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備를 그에게 提供하였던 것이다<sup>14)</sup>. 스트라스부에서 돌아온 칼빈은 迅速하게 「教會憲法」(Ecclesiastical Ordinances: *Projet d'Ordonances Ecclesiastique*)을 作成하여 提出하였는데, 이것은 1541년 11월 20일에 法制化되었다<sup>15)</sup>. 칼빈은 이 文書에서 教會生活의 秩序를 法으로 組織하려고 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敎育과 관련되는 몇가지 重要한 것들이 言及되고 있다.

첫째로, 이 文書는 教會의 職分에 대해 言及한다. “그리스도께서는 教會의 政治를 위해 네 가지 職分을 制定하셨다. 牧師(pasteurs)와 敎師(docteurs)와 長老(anciens)와 執事(diacres)이다<sup>16)</sup>. 牧師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聖禮를 집행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르치고, 訓戒하고 勤勉하고, 賡望하며, 長老들과 함께, 敎人들을 兄弟的 사랑으로 治理하는 것이다. 敎師의 직무는 無知나 잘못된 見解에 의하여 福音의 純粹함이 腐敗되지 않도록 眞된 敎理를 信者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며, 長老는 敎人들의 道德生活를 監視하고 治理하게 하며 執事들은 救濟와 奉仕의 일을 하게 했다<sup>17)</sup>. 여기서 特記할 만한 일은 敎師의 職分을 教會의 秩序속에 포함시켜 強調한 점이다. 칼빈은 敎師의 職分은 곧 “學校의 職分”이라고 말한다<sup>18)</sup>. 또한 敎師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資質을 갖추어야 하며, 牧師들의 裁可를 얻어야 했다<sup>19)</sup>. 물론 모든 敎師들도 牧師들과 같이 教會의 法에 服從하여야 한다<sup>20)</sup>. 울리히(Robert Ulich)는 이와 같은 칼빈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칼빈은 敎育을 靈的인 秩序의 한 部分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敎師의 任命에는 牧師의 同義가 따라야 했다. 學校는 無知함이나 거짓된 敎理에

14) William A. Scott, *Historical Protestantism: An Historical Instruction to protestant The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p. 34.

15)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September and October 1541”, p. 54.

16) *Ibid.*, p. 58.

17) *Ibid.*, pp. 58-66.

18) *Ibid.*, p. 62.

19) *Ibid.*, p. 63.

20) *Ibid.*

의하여 福音의 純粹함과 敎理의 健全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學校는 배움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統治를 實現하는 手段이 된다<sup>21)</sup>.

둘째로 칼빈은 이 文書에서 學校 建立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칼빈은 그러한 뜻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다가오는 未來를 위해서 後孫을 기르는 것이 必要하며 教會가 우리들의 子女들을 外面하지 않기 위해서 學校가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牧師와 市民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다”<sup>22)</sup>. 칼빈은 여기서 聖職者의 養成과 同時에 健全한 市民의 養成을 主張하고 있다.

셋째로, 이 文書에서는 子女들에게 要理問答을 敎育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모든 市民들과 居住者들은 그들의 子女를 主日 正午에 要理問答 敎育에 데리고 오도록 했다. 이런 敎育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교회앞에서 嚴肅히 告白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후에야 聖餐에 參與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대단히 重要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規則을 違反하는 사람들은 長老들의 모임에 召喚되고 그들이 忠告에 順從하지 않으면 市議會에 報告되어야 한다. 義務가 잘 履行되는지 알기 위해 長老들은 항상 注意해야 한다”<sup>23)</sup>.

칼빈은 以上과 같이 그의 「教會憲法」속에서 敎育을 靈的인 秩序의 한 部分으로 보았고, 學校建立의 熱望을 表示하였으며 要理問答 敎育을 強調하였다.

### 3) 「信仰告白書」

이 文書는 앞의 두 文書보다 시간상으로 앞서는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活動을 시작할지 얼마 안 되는 1536년 11월 10일 21개조로 構成된 信仰告白書「(Confession of Faith)」를 화렐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였다<sup>24)</sup>.

21) Robert Ulich,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p. 123.

22) John Calvin, *op. cit.*, p. 63.

23) *Ibid.*, p. 69.

24)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Confession of Faith which all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Geneva and the subjects of the country must

이 신앙고백서는 제네바 市民들이 지킬 것을 誓約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때 제네바에는 宗教改革의 氣運이 감돌고 있었으나 아직도 迷信에 사로 잡히고 로마敎皇의 王國을 그리스도의 나라 以上으로 믿고 있는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의 모든 시민에게 公開的인 信仰告白의 義務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의 改革을 위해 제네바에는 하나의 敎會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告白書는 제네바 市民을 信仰의으로 統一시킴으로써 政治的인 統一을 이루려는 그의 意圖가 숨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메킨논(James Mackinnon)은 칼빈의 行爲를 人間의 自由와 良心을 抑壓하는 疑心할 만한 일이라고 批判하였다<sup>25)</sup>. 그러나 그는 칼빈이 가진 아름다운 動機를 보지 못하였다. 칼빈은 個人的인 信仰告白을 통하여 敎會를 올바른 基礎위에 두기를 원하는 基本原理를 가졌던 것이다<sup>26)</sup>. 칼빈의 관심은 信仰告白의인 會衆에 있었으며<sup>27)</sup>, 이러한 目標을 위해 敎會에서는 福音만이 純粹하고도 信實하게 傳播되어야 한다<sup>28)</sup>.

이 文書에 보면 어린이들도 敎會의 同等한 會員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 역시 우리 主님과의 관계속에 所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9)</sup>. 또한 이 文書에는 信實한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敎育과 訓戒와 勸告으로써 指導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sup>30)</sup>, 信者들 사이에 기록을 保存하기 위해서 強力한 권징을 實施할 것을 아울러 強調하고 있다<sup>31)</sup>. 다음과 같은 점들은 칼빈의 敎育意圖와 관련해서 좋을 示唆을 준다.

첫째, 칼빈은 이 信仰告白書를 作成한 의도를 통해서 제네바를 信仰으로 統一시키려는 宣敎의 熱意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共同體的인 관심을

promise to keep and hold (1536)", pp.25-33.

25) James Mackinn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Inc., 1962), p.61.

26) 허순길, *op. cit.*, p.44.

27) Peter Y. De Jong, *op. cit.*, p.170.

28)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31.

29) *Ibid.*, p.30.

30) *Ibid.*, p.32.

31) *Ibid.*, p.31.

보여주고 있다.

둘째, 칼빈은 敎會를 根本的으로 信仰告白의인 次元에서 생각하고 있고 信仰告白의 根據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敎會는 말씀을 가르치는 使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셋째, 칼빈은 이 告白書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再次 表明 하였다.

그러므로 이 告白書는 法的인 規則은 아니지만 基督教 敎育과 관련된 칼빈의 敎育의도를 쉽게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 文書라고 할 수 있겠다.

### 3. 著述을 통한 敎育活動

#### 1) 「基督教綱要」

칼빈은 친구인 니콜라스 콕(Nicholas Cop)이 1533년 11월 파리大學의 學長으로 就任할 때, 그의 就任演說을 準備해 주었다. 이 演說의 內容은 福音主義的인 見解를 大膽하게 表明한 것이었으며 신약성서를 基礎로 하여 敎會를 改革해야 될 것을 呼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演說은 敎회의 권위자들을 크게 분격시켜서 그들은 칼빈을 逮捕하려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 칼빈은 1534년 1월 放浪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칼빈의 放浪時代, 즉 그가 파리에서 脫出하였을 때, 그리고 후에 바젤에 居住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자기 同族들이 受難하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다<sup>32)</sup>. 칼빈은 같은 信仰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殘忍한 迫害를 받는 것을 차마 그대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저들을 辯護하기 위하여 古色蒼然한 이 조용한 바젤에서 붓을 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가 平信徒를 위해서 著述한 소책자로서 基督教 史上 有名한 「基督教綱要」의 첫판이었다<sup>33)</sup>. 이 책은 1536년 4월에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라는 이름으로 바젤에서 出版되었다. 이 책은 후에 프로테스탄트의 信仰을 가장 權威 있고 強力하게 說明한 冊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초로 칼빈은 基督教 敎理

32) T.H.L.Parker, *op. cit.*, p.31.

33) *Ibid.*, p.32.

를 簡明하게 說明하는 敎本으로서 그 冊을 내어 놓은 것이다. 이 冊은 그 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여러판 증보되어 1559년에는 原本보다 5배나 큰 冊인 오늘의 부피와 같은 冊이 되었다. 여기서 特別히 指適할 것은 칼빈의 基督教綱要는 偉大한 神學的 저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칼빈이 이 冊을 熱情的인 그의 牧會者的 觀點에서 써 내려갔음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단지 神學的 著作을 의도하고 그 시대의 神學的 전문가를 위해서 이 冊을 쓴 것이 아니라, 다분히 教育的 목적을 가지고 이 冊을 쓴 것이다. 그가 題目에서 使用한 “Institutio”라는 말은 instruction 혹은 education 이라는 말과 그 意味가 통하는 말이다. 基督教綱要의 라틴어 初版(1536)에 나타나는 프랑스왕 “프란시스 1세(Francis 1)에게 드리는 편지”와 라틴어로 된 마지막판(1559)의 “讀者에게 드리는 글”에서 칼빈의 教育的 意圖는 分明히 드러나게 된다.

“내가 이 일을 처음 着手할 때, 陛下께 이 冊을 奉呈하리라는 생각은 秋毫도 못했습니다. 나는 다만 基本原則들을 傳함으로 宗教에 熱心이 있는 사람들이 眞正한 敬虔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불란서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데 그들의 大部分은 그리스도에 대해 주리고 목말라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작은 知識을 가진 자도 거의 볼 수 없는 地境입니다. 나의 의도는 本齋를 보면 알 수 있으니 單純하고 基礎적인 가르침의 形態를 取하고 있습니다”<sup>34)</sup>.

“이 研究에서 나의 目的하는 바는 거룩한 말씀을 읽음으로써 學徒를 準備시키고 訓練하므로 그들이 聖書에 쉽게 接近할 수 있으며, 失手함이 없이 그속에서 前進할 수 있기 위함이다. 나는 基督教 全體를 이와 같이 理解하고 이런 順序로 要約했는데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敎理의 樣式을 올바르게 理解하면 聖經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자신의 문제를 성경의 어느 곳과 관련시켜야 할 것도 쉽게 판단하고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여기서 볼 때 그는 이 冊을 단지 학문을 위한 神學書로서가 아니라 배움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理解하도록 돕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러므로 基督教綱要는 信者들로 하여금 聖經을 읽고 깨닫도록 充分

34) John Calvin, *Institutes*, p. 9.  
35) *Ibid.*, p. 4.

히 教育시키려는 目的에서 이루어졌으며<sup>36)</sup>, 이 冊에서 칼빈의 관심인 牧會者的인 熱情과 꿈은 主님을 單純히 따르는 者들의 要求를 向하여 돌려진 것이다<sup>37)</sup>.

1536년에 發刊된 基督教綱要의 初版은 마지막판에 비하면 소책자에 불과 했는데 총 6장으로 構成된 기독교 신앙의 案內書로 律法(Law), 信仰(Faith), 祈禱(Prayer), 聖禮(Sacrament), 거짓聖禮(False Sacraments), 基督教인의 自由(Christian Liberty)등을 다루고 있다<sup>38)</sup>. “기독교 강요는 그 記錄된 動機나 目的에서 만기 아니라, 그 內容 自體를 볼 때 칼빈 자신의 의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記錄된 聖書의 眞理를 闡明하려고 함이 聖書의 眞理를 組織적으로 체계화시켜 論述하는 神學 自體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음을 본다”<sup>39)</sup>.

칼빈은 1541년 즉 라틴어 2판이 나온지 2년만에 모국어인 佛語로 이를 번역하여 出版하였다. 學者들의 用語인 라틴어로부터 불란서어로 번역한 것은 그의 동포들 중에 平民들의 有益을 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sup>40)</sup> 이 불란서어 판이 끼친 영향은 루터의 獨語聖經과 그의 다른 著作들과 비교해 볼 때 더 廣範圍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1)</sup>. 참으로 대중어인 불어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것은 불란서와 스위스의 宗教改革의 運命을 위하여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갖는 것이었다. 라틴어판이 知識人을 위한 著作이라고 한다면 佛語版은 大衆을 위한 作業이었다. 라틴어판이 神學者, 哲學者, 全 世界의 知性人을 위해서 쓴 책이라면 불어판은 불란서, 스위스 그리고 이웃나라의 대중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던 것이다<sup>42)</sup>.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平信徒와 대중을 教育시키기 위한 努力的

36) Arther Dakin, *Calvinism*, 이병섭 역, 칼빈주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p. 5.

37) Peter Y. De Jong, *op. cit.*, p. 174.

38) J. Chr. Coetzee, *op. cit.*, p. 212.

39) 김정준, “성서학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기념논문집(1965. 5), p. 35.

40) T. H. L. Parker, *op. cit.*, p. 5.

41) Francis Wendel, *op. cit.*, p. 117.

42) 진복윤, “기독교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배경(I)”, 신학지남, 177호 (1977. 6), p. 42.



產物인 것이다.

## 2) 「信仰指導書」

칼빈은 「教會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條例」에 根據하여 「信仰指導書」(Instruction in Faith)라는 冊을 出版하였다. 이 冊은 1536년 10월부터 1537년 1월 사이에 쓰여진 듯하며, 1537년에 佛語로 發刊되었고 1538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이 冊은 1536년의 기독교강요 初版에서 發見되는 資料들을 徹底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짧은 時間의 準備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실상 이 冊은 基督教綱要의 要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冊은 使用된 지 얼마 못되어 곧 사라져 버렸으나 1877년에 파리에서 原本이 발견됨으로 1878년에 제네바에서 다시 발행되었고, 1959년 폴만(Paul T. Fuhrman)에 의해 英語로 번역되어 나왔다<sup>43)</sup>. 이 冊은 簡潔하게 基督教 信仰을 要約해 놓은 것으로 單純하고 明確하며, 特別 論爭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sup>44)</sup>. 버틀러(J. Donard But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의 초기 저서 중에 信仰指導書라고 불리는 작은 冊이 있다. 비록 이 冊의 題目은 宗教教育에 관한 冊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 이 冊은 洗禮와 信仰告白을 위한 준비서이다. 이 책은 敎訓集이나 洗禮 志願者를 위한 案内書의 일종이며, 많은 敎理問答書와 비슷한 體裁를 갖추고 있다<sup>45)</sup>. 여기서 指適된 것과 같이 이 冊은 敎育理論을 論述한 책은 아니지만, 칼빈의 敎育活動의 하나로서 重要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指導書는 총 33장으로 構成되어 聖書의 基本的인 가르침을 論하고 있다. 그런데 이 冊은 內容이 問答式이 아니고 論文式으로 되어 있으며 內容도 어린이에게는 理解하기 어려운 點이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 冊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대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冊의 內容을 基礎로 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記憶할 必要가 있다. 부모는 먼저 이 讀本을 理解한 후에 쉬운 말과

詳細한 說明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sup>46)</sup>. 이 信仰指導書는 루터가 만든 要理問答書를 包含한 이전의 여러 가지 問答書보다 發展된 점이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칼빈은 여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여러 가지 局面들을 調和하고 緻密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段階적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完全함으로 이끌려고 努力하였다. 또한 칼빈은 信仰의 原理를 知識의으로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實生活의 實踐에까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關係 教會禮式과 政治에 關連된 문제들을 다룬점에서 分明하다. 特別 이 冊에서 興味를 끄는 것은 그가 序文 대신으로 사용한 세계의 성구<sup>47)</sup>와 冊 마지막에 사용한 두개의 성구이다<sup>48)</sup>.

“갓난 아이들 같이 純全하고 神靈한 것을 사모하라”(벤전 2:2)

“너희 속에 있는 所望에 관한 理由를 묻는 자에게는 對答할 것을 항상 豫備하라”(벤전 3:15)

“만일 누가 말하더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벤전 4:11)

“이러므로 나의 百姓이 無知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사 5:13)

“靑年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시 119:9)

以上과 같은 그의 引用은 말씀에 執着하는 그의 마음을 엿보게 해 주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信仰敎育의 根據, 가르치는 자의 姿勢 등에 대한 그의 見解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3) 「제네바教會의 要理問答」

「信仰告白書」와 「信仰指導書」를 낸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오자 곧 「제네바教會의 要理問答」(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을 發刊하였다. 要理問答書의 佛語版은 1541년에 發刊되었으며, 獻呈辭를 包含한 라틴어판이 1545년에 發刊되었다<sup>49)</sup>. 이 要理問答은 종전의 「信仰指導書」와는 달리, 牧師가 묻고 兒童이 答하는 形式으로 고쳐졌고 그 內容도 쉬워

43)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trans. Paul T. Fuhrm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44) Peter Y. De Jong, *op. cit.*, p. 175.

45) J. Donard Butler,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1962), p. 41.

46) Peter Y. De Jong, *op. cit.*, p. 178.

47) John Calvin, *op. cit.*, p. 16.

48) *Ibid.*, p. 78.

49) Peter Y. De Jong, *op. cit.*, p. 180.

진 傾向이 있다. 칼빈은 스트라스북에 滯留하는 동안 어린이의 制限된 能力에 관한 洞察力을 얻은 듯하다. 이것은 그가 「信仰指導書」를 내놓을 때는 미처 갖지 못한 생각이었다. 이 要理問答은 아직도 어려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먼저 것 보다는 어린이의 水準에 가까워진 것 만은 事實이다<sup>50)</sup>. 이 問答書는 373개의 質問과 對答으로 되어 있으며(원본에는 번호가 붙어있지 않음), 1부는 믿음(De Fide), 2부는 律法(De Lege), 3부는 祈禱(De Oratione), 4부는 聖禮(De Sacramentis)를 다루고 있다. 順序上 「기독교강요」 초판이나 「신앙지도서」와 다른 점은 믿음이 律法보다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 點이다. 이 문답서의 붙어판은 便宜상 55주용으로 分類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어있다<sup>51)</sup>.

칼빈의 要理問答은 후에 여러 나라에서 매우 廣範圍하게 使用되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基礎가 되었다<sup>52)</sup>. 칼빈이 要理問答을 作成한 事實에서 重要な 점은 후에 논하겠으나 하나의 教會를 이루려는 칼빈의 努力과 教育을 牧師와 兒童의 對話로 把握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教會教育에 대한 칼빈의 주된 貢獻이라 할 수 있다. 牧師와 어린이의 對話와 親交관계(fellowship) 속에서 바른 教育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칼빈의 要理問答은 教會教育의 內容 뿐만 아니라 形態에도 새로운 方向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sup>53)</sup>.

칼빈은 要理問答 序頭에서 人生의 第一되는 目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가진 教育의 目標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 사 :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린이 :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목 사 :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이 :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두심으로 우리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50) William Boyd,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London: Adams and Black, 1947), pp. 193f.

51)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p. 84-87.

52)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1), p. 150.

53) Peter Y. De Jong, *op. cit.*, p. 185.

다.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향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목 사 :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어린이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사 : 왜 그런가?

어린이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는 다른 짐승보다 더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사 :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안다.

어린이 : 그렇습니다.

목 사 :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어린이 : 우리가 그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존귀가 그에게 돌려 집니다.

목 사 :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어린이 :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배우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 보면서 하나님 속에서 구원과 온갖 선한 일들을 찾으며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sup>54)</sup>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教育의 目標은 매우 自明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칼빈은 人生의 目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單純한 知識으로서의 知識이 아니라, 人間의 모든 삶의 行爲를 포함한 敬虔의 삶인 것이다. 그러기에 칼빈은 人間을 바른 基督教人의 생활로 이끌어 하나님의 榮光을 드러내는 것을 教育의 목표로 把握하고 있다. “敬虔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知識이 없다<sup>55)</sup>”는 말은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을 더욱 分明히 해준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教育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生涯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榮華롭게 하도록 準備하는 基本的인 手段이었다<sup>56)</sup>. 다음과 같은 말은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知識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54)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that is a plan for instructing children in the doctrine of Christ,” pp. 89-90.

55) John Calvin, *Institutes*. I, ii, 1.

56) C. Gregg Singer, *John Calvin: His Root and Fruit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7), p. 58.

“人間은 認識을 통하여 信仰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認識이 있으므로 비로소 敎育이 가능하고 矯正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안다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그의 敎育은 결코 知識이나 學問의 堆積은 아니다. 그것은 全人格의인 信仰者의 形成을 의미한다. 즉 그의 敎育은 人間의 理性에만 呼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心淸의 活動도 요구한다. 그것은 삶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認識할 뿐 아니라 그 전 심정과 심의를 총 發揮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窮極의 目標로 삼는 心淸적인 훈련인 것이다... 칼빈이야말로 삶을 高調하는 이지인이었을 뿐 아니라 靈魂의 指導者요, 祈禱의 敎師요, 良心의 스승이었다 할 것이다<sup>57)</sup>”.

이상에서 볼 때 칼빈은 그의 要理問答를 통해서 聖書敎育에 대한 그의 열의와, 對話를 통한 敎育의 方法과 敎育目標의 파악을 위한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 4. 學校建立을 통한 敎育活動

##### 1) 「제네바 學校를 위한 試案」

1538년 1월 12일 칼빈은 老敎授인 코디에(Cordier)와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제네바의 公立學校와 관계된 重要한 文書를 發表하였다. 이것은 「제네바 學校를 위한 試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 Genevae Ordo et Ratio Docendi in Gymnasio)이다<sup>58)</sup>. 이 文書에서 말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sup>59)</sup>.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土습가 된다. 그리고 인문학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知識에 도움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문학과를 輕視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네바의 學校는 聖職者를 위한 準備와 바른 市民이 되기 위한 準備를 위해 組織되어야 한다. 즉 敎職者 養成 뿐만 아니라 市民敎育을 중시하였다.

57) 정웅섭,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한국신학대학보, 3집(1957. 7), p. 104.

58) 이 文書는 A. L. Heminjard의 9권으로된 책 Correspondance des réformateurs (제네바, 1866-97)의 제 4권 pp. 455-460에 收錄되어 있다.

59) J. Chr. Coetzee, *op. cit.*, p. 201.

##### 2)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敎育事業은 그가 念願하여 오던 제네바 아카데미를 設立한 일이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고 있는 동안 스트루름(Strum)으로부터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오자 그는 「敎會憲法」(1541)에서 學校設立에 대한 깊은 관심을 表明하였다. 1556년 그는 再次 스트라스부르를 訪問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거기서 學校設立에 대한 靈感과 例證을 얻게 되었다<sup>60)</sup>.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에 돌아 올 때부터 그가 가지기 시작한 理想은 끊임 없는 障礙로 오랫동안 實現되지 못하였으나 1559년 6월 5일 드디어 제네바 아카데미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sup>61)</sup>. 이 아카데미는 高等部(Schola Privata)와 神學部(Schola Publica)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칼빈이 世上을 떠난 1564년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학생들로 高等部に 1,200명, 神學部に 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sup>62)</sup>. 이 학교의 高等部는 7개의 班으로 構成되었으며 進級은 綜合成績 評價로 이루어졌다. 칼빈의 아카데미는 史上 처음으로 學年制에 의한 敎育을 實施하므로 學級편성이라는 세 제도를 물려 주었다<sup>63)</sup>.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화란등 世界 각지에서 情熱에 넘치는 젊은 일꾼들을 불러 訓練시켜 改革敎會의 역군으로 파송하였다. 실로 이 아카데미는 세계의 改革運動을 이끄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溫床이 되었던 것이다<sup>64)</sup>.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青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改革精神을 심었으므로 改革精神과 칼빈주의는 急速度로 전 유럽에 흩어지게 되었다. 실로 이 아카데미는 神政國家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冕蔬冠과도 같은 成就였다<sup>65)</sup>. 칼빈은 아카데미의 建立을 통하여 그의 인문학과에 대한 見解를 實現시켜주며<sup>66)</sup> 敎育을 통한 改革을 계속해 나갔다. 여기서 한 가지 루터와 비교할 때 발견되는 점은 칼빈은 처

60) J. Chr. Coetzee, *op. cit.*, p. 205.

61) James Mackinnon, *op. cit.*, p. 177.

62) *Ibid.*

63) 손인수, 경제철, 서양교육사(서울: 교육출판사, 1967), p. 88.

64) C. B. Eavey, *op. cit.*, p. 164.

65) J. Chr. Coetzee, *loc. cit.*

66) J. Donard Butler, *op. cit.*, p. 40.

음부터 國際性을 띠었으나 루터는 民族主義的인 경향이 더 强하였다는 점이다<sup>67)</sup>.

### Ⅲ. 칼빈의 教育活動의 意義

#### 1. 聖書教育의 強化

##### 1) 칼빈의 聖書觀: 教會의 土台

칼빈은 1538년에 作成한 「제베바 學校를 위한 詩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根據가 된다고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교육에서 뿐 아니라 일반 교육의 영역에서도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教育의 土台인 聖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間의 精神은 無力하므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의 도움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知識에도 到達할 수 없다”<sup>68)</sup>.

“만일 참다운 宗教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의 敎訓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聖經의 弟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正當하고 健全한 敎理의 가장 작은 조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야 한다”<sup>69)</sup>

“聖經은 聖靈의 學校이다. 그 안에는 알아서 유용하고 必要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記錄되어 있고 알아야 할 重要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sup>70)</sup>.

이와 같은 칼빈의 생각에 대해 파커(Park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先生과 學生의 관계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敎師다. 學校 또는 교과목은 聖經이다. 人間은 學生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唯一한 교장은 聖經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敎訓이기 때문이다”<sup>71)</sup>. 이와 같은 파커의 把握은 칼빈의 생각을 잘 描

67) C. B. Eavey, *loc. cit.*

68) John Calvin, *Institutes*, I, vi, 1.

69) *Ibid.*, I, vi, 2.

70) *Ibid.*, III, xxi, 3.

71) T. H. L. Parker, *Portrait of John Calvin*, 김재준역, 칼빈의 모습(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 52.

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칼빈神學의 土台는 聖經을 통해서만 創造主이시며 救贖主이시며 세계의 主人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는 언제나 聖經 위에서만 그의 神學的 프로그램을 建設하려 하였기 때문이다<sup>72)</sup>. 여기에서 한 가지 칼빈에게 있어서 독특한 것은 一般教育의 영역에서도 聖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人間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聖書의 根本的인 權威를 받아들였으므로, 教育의 영역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서의 健全한 지식은 教育의 어떠한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 基礎가 되는 것이다<sup>73)</sup>. 칼빈은 教會가 教育을 掌握해야 한다고 主張한 선구자로서, 여기에 대해 싱거(C. G. Singer)는 다음과 같이 잘 要約해 주었다.

“칼빈은 學校는 宗教의 領域에서 中立的이며 聖書는 公立學校의 敎과 과정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날의 教育의 見解에 反感을 느끼고 있다는데 疑心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그는 모든 眞理는 窮極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教育은 그 目的에 있어서 倫理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否定하는 現代 教育哲學에 反對한다. 그는 人間을 機械的인 進化의 힘에 의한 産物로 보며, 모든 教育을 條件化의 過程으로 생각하는 哲學的 見解를 全的으로 反對했다”<sup>74)</sup>.

과연 칼빈은 知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그 中心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教育行爲를 計劃하고, 判斷하고, 實踐한 독특한 人物이었다.

##### 2) 칼빈의 聖書教育活動

칼빈은 많은 改革者와 함께 聖書教育을 중시하였고, 이 일을 實踐하려고 努力하였다. 칼빈은 설교를 통해서 聖經을 강해하였고 그러한 活動을 힘입어 龍大한 주석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강요」를 통해 성경의 眞理를 教育하기에 힘썼으며,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의 教育을 위해 「信仰指導書」와 「제베바敎會의 要理問答」을 저술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72) *Ibid.*, pp. 50-51.

73) C. Gregg Singer, *John Calvin: His Root and Fruits*(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7), p. 56.

74) *Ibid.*, pp. 59-60.

教會法規 속에서 이런 聖書教育의 根據를 마련하여 이를 강력히 실천하였고 모든 教育活動의 方向을 하나님의 말씀을 宣布하는 것과 그 말씀의 眞理를 가르치는 것으로 向하였다. 칼빈은 교육을 통해 中世의 암흑 속에서 沈滯했던 말씀의 復興을 일으킴으로써 教會改革의 새로운 기틀을 이루는데 貢獻하였다. 칼빈에게 하나의 큰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充實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問題였다. 칼빈의 이 불타는 말씀에 대한 執着은 오늘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必要가 있으며, 오늘의 基督教教育의 새로운 展望을 다시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 2. 人文主義 教育의 強調

### 1) 칼빈의 啓示論

칼빈은 神認識論에서 두 가지 길을 提示하였는데 그 하나는 特別啓示이며 또 하나는 一般啓示이다. 칼빈은 學習의 과정을 特別啓示에만 국한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칼빈은 人間이 創造時에 文化的使命(Cultural Mandate)을 받았으므로 個人의 才能이 허용하는 한 여러 가지 知識의 領域을 追求해야 한다고 했고 이것은 人間이 自然啓示의 眞理를 이해할 의무와 또한 文化的 청지기직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청지기로서의 人間은 社會속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그가 살고 있는 自然世界를 알아야 한다. 크리스찬은 모든 眞理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면서 가능한한 일반계시의 領域에서 知識을 探究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또한 義務인 것을 칼빈은 主張하였다<sup>75)</sup>. 또한 칼빈은 여러 가지 학문의 支流를 研究하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참된 意味를 發見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였다. 自然과 文化의 참뜻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思考해야 할 必要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크리스찬은 참 知識에 대한 깊은 洞察力을 所有하게 되는 것이다.

### 2) 人文科學에 대한 칼빈의 見解

칼빈은 人文主義와 깊은 連관을 가지고 있다<sup>76)</sup>. 그러므로 칼빈과 人文

75) C. Gregg Singer, *op. cit.*, pp. 56-57.

76) Francis Wendel, *op. cit.*, pp. 27-37.

主義와의 關係를 研究하는 것은 그의 教育的 의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에서는 칼빈의 成長과 教育을 통해서 칼빈의 人文主義와의 關係를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人文主義에 대한 그의 態度를 생각해 본다. 칼빈이 최초로 人文主義에 心醉된 것은 事實이나 르네상스, 휴머니즘사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肯定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本質과 휴머니즘 사상은 根本적으로 異質적인 立場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古典이 人間의 精神生活에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認定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은 그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성경과 古典文學은 그 窮極的 價値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는 古典의 가치와 一般知識의 효능에 대해 無視하지 않았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말을 읽으라.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作品도 읽으라. 그들은 놀라운 정도로 그대들을 魅惑시키며 즐겁게 할 것이며, 또한 感動을 주어 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나는 認定한다. 그러나 그대는 성경을 읽는데 무엇보다도 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 스스로가 古典을 사랑하고 즐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길게 그대에게 影響을 줄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의 가슴속에 스며 들어 그대의 매우 좁은 識見을 更正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깊은 감명은 古典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고대의 雄辯家들과 哲學者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聖經은 人間의 努力으로 얻어진 모든 天賦的인 것과 아름다운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어떤 神的인 것을 呼喚하고 있다는 事實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sup>77)</sup>”.

“우리는 世俗作家들의 作品을 볼 때마다 그 作品속에서 빛나고 있는 놀라운 眞理의 빛을 통하여 비록 墮落은 하였으나 人間의 精神은 아직도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gifts)로 옷입혀져 있고 裝飾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sup>78)</sup>”.

이상과 같이 칼빈은 古典教育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오는 더 높은 知識보다는 劣等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劣等하다고 해서 蔑視받거나 拒否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에 의하면 古典研究는 人間을 보다

77) John Calvin, *Institutes*, I, viii, 1.

78) *Ibid.*, II, ii, 15.

더 풍부하게 理解하는데 必要하며 또한 福音의 眞理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學問하는 精神은 聖職者가 가지고 있는 召命만큼 거룩한 것이라고 그는 確信하였다. 그리스도인이 學問하는 目的은 지식을 위한 지식의 追求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世上을 創造할 때 마련해 놓은 普遍的 眞理를 發見하고 認識함으로써 그의 榮光을 드러내는데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崇信과 學問은 相互間에 衝突하지 않고 調和를 이룬다는 것이 칼빈의 獨極的 信念이었다. 칼빈은 人文主義的 教養을 體得했지만 결코 그것만을 尊崇하지는 않았다. 그는 哲學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同化되지 않았다. 그는 神의 主權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판했던 獨보적인 存在였다<sup>79)</sup>.

### 3) 제네바 大學의 교과과정

칼빈은 「제네바 學校를 위한 試案」에서 世俗學科에 대한 訓練은 宗教的 訓練과 같이 本質的인 것임을 말하였고, 人文教育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 古典的인 教養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훨씬 積極的이었다.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古典的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各급학교 教育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였다<sup>80)</sup>. 특히 제네바 대학의 교과과정을 보면 칼빈이 인문 과목을 중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제네바대학의 高等部(Schola Privata)는 7개 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 學年이 7學年이다. 각 學年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sup>81)</sup>.

- Class 7 : ① French-Latin 독본을 이용한 알파벳의 공부와 음절형성 練習  
② Latin-French 요리문답서로 읽기연습
- Class 6 : ① 라틴어 격변화와 動詞活用 공부 ② 스피치법 ③ 쓰기연습  
④ 회화를 위한 쉬운 라틴어 문장의 반복
- Class 5 : ① 스피치법 ② 구문의 요소 ③ Virgil의 Bucolica 읽기 ④ 작문 첫 단계
- Class 4 : ① 라틴 구문론 계속 : Cicero의 서신으로 작문과 함께 공부 ② 시

79)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 : 성광문화사, 1977), p. 146.

80)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서울 : 대한기독교 1976), p. 48.

81) J. Chr. Coetzee, *op. cit.*, pp. 209-210.

형본 : Ovid의 De Tristibus와 De Pont로 음절과 그기치를 공부 ③ 그리스어 시작 : 격변화와 동사활용

Class 3 : ① 그리스어 문법의 체계적 학습 ②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비교 ③ Cicero의 편지, De Amicitia와 De Senectute를 라틴어와 회답어로 공부 ④ Virgil의 Aeneas, Caesar와 Isocrates의 글 읽기

Class 2 : ① 읽기 중점지도 : Livy, Xenophon, Polybius, Herodian, Homer 등 ② 논리학 시작 : 명제와 삼단논법 : Cicero의 언설로부터 설명 ③ 1주일에 한번씩 그리스어로 복음서 공부

Class 1 : ① Melancthon의 책으로부터 조직적인 논리학 공부 ② Cicero, Demosthenes, Homo, Virgil의 글을 통한 수사학 ③ 한 달에 2회 언설 ④ 1주일 한 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서신이나 다른 사도의 편지 읽고, 듣기”

이상과 같은 교과과정은 라틴어, 회답어, 文學, 論理學, 修辭學 등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神學部(Schola Publica)에서는 神學과 哲學, 히브리어, 藝術등을 부가하여 가르쳤다. 버틀러는 여기에 대하여 “칼빈이 제네바 대학을 建立한 사실은 意味深長하다. 그는 제네바에 學校와 質 높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그의 관심은 인문학과의 重要性에 관한 그의 確信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2)</sup>.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教育活動에서 人文主義教育을 強調하였다. 그는 폭넓은 교과과정을 통한 世界와의 對話를 追求하였다. 이런 點에서 칼빈의 教育은 오늘의 教會와 基督教教育에 새로운 意味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되어진다.

### 3. 生活實踐의 教育 實施

#### 1) 生活實踐에 관한 칼빈의 見解

이 世界는 人間을 訓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世界이며, 사람들에게 使用하도록 맡겨진 곳으로 칼빈은 생각하였다<sup>83)</sup>. 칼빈의 이런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독특한 倫理的 理想과 목표를 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實踐하도록 하는데 적지 않는 貢獻을 하게

82) J. Donard Butler, *op. cit.*, p. 40.

83) Arthur Dakin, *op. cit.*, p. 284.

되었다<sup>84)</sup>.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생활 실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다른 여러 견해에 비해 볼 때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85)</sup>. 칼빈은 神學이 결코 神學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sup>86)</sup>. 그에게 있어서 神學은 信徒의 健德과 信仰의 증진 즉 경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있었고 教理도 역시 教理 自體를 위함 보다는 信仰과 生活 즉 참 宗教의 確立을 위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神學은 生活의 神學이었고 또한 生活을 위한 神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豫定論을 잠시 생각해 본다. 보통 豫定論은 人間을 宿命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誤解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見解이다. 이 問題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選擇의 目的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生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選擇의 目的이 거룩한 生活을 하는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生活을 實踐하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刺戟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怠慢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sup>87)</sup>

따라서 예정론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황공하게도 選擇되었다고 告白하는 사람은 當然히 하나님의 뜻대로 生活하여 하나님께 榮光을 돌려야 한다는 論理的 歸結點에 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칼빈을 비롯한 그의 思想體系를 받은 사람은 倫理的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이 想像할 수 없을 만큼 철저했다는 結果를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칼빈은 요리문답의 序頭에서도 인간의 主된 目的이 神을 認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神認識이란 곧 服從과 禮拜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全的으로 신뢰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했다. 동시에 그는 神知識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信仰의 實踐이 必要함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칼빈의 思想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勇氣와 活動의 精神

을 넣어주는 날라운 힘이 되었고<sup>88)</sup>, 칼빈주의는 어떤 명확한 生活態度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89)</sup>.

## 2) 칼빈의 生活實踐教育

칼빈의 教育活動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점은 이와 같은 生活實踐의 강조에 있다. 칼빈은 그의 思想의 核心部分에 敬虔 즉 生活實踐을 강력히 要求하였고, 全人格的인 變化를 주장하였으며, 이 要求나 主張을 教育을 통해 實現시켜 나갔다. 그는 教會의 秩序와 市民生活의 秩序를 매우 強調하였고, 敬虔을 訓練하는 것이 教育과 市民的 秩序의 基本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이 生活實踐의 教育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強力한 法規를 만들어 實施했으며 宗教會議를 만들어 市民들의 信仰生活를 指導케 했다. 市民的 健全한 倫理와 秩序를 위해 칼빈이 만든 「教會의 監督을 위한 規程」(1547)에 보면 禮拜에 참석하는 일, 要理問答을 가르치는 일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迷信, 神을 冒瀆하는 行爲, 술취함, 歌舞, 高利貸金, 말다툼, 姦淫 등에 대한 엄격한 規制를 하고 있다<sup>90)</sup>. 여기서 칼빈이 努力한 것은 제네바 社會 곧 市民全體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知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日常生活이 믿는 바 信條에 부합하도록 努力하는 것이었다<sup>91)</sup>. 칼빈의 教育活動 속에는 敬虔한 生活에로의 부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울려나고 있다. 이런 생활실천의 강력한 教育은 나스(John Knox)로 하여금 제네바를 “使徒들의 시대 이래 이제까지 地上에 存在한 가장 完全한 그리스도의 學校”라고 부르게 만들었다<sup>92)</sup>.

각양 폭동과 不道德으로 소문난 제네바가 이제는 전 유럽에서 가장 敬虔한 郡市로 알려지게 된 것은 칼빈이 거둔 眞正한 勝利였다. 칼빈의 教育의 強力한 힘은 그의 生活實踐의 強調에 있었음을 再三 理解해야 할 것이다.

## 4. 共同體를 爲한 教育

84) *Ibid.*, p. 267.

85) 한철하,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1965. 5), p. 79.

86) *Ibid.*, p. 72.

87) John Calvin, *Institutes*, III, xxiii, 12.

88) Arthur Dakin, *op. cit.*, p. 203.

89) *Ibid.*, p. 267.

90)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p. 77-82.

9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서울: 선교출판사, 1959), p. 41.

92) James Mackinnon, *op. cit.*, p. 171.

칼빈의 教育活動의 意義는 그가 共同體의 重要性을 강조한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文東煥 教授는 칼빈의 教育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制度로서 信仰生活을 訓練하려는 態度는 오늘날 教會에서는 빌로 볼 수 없다. 우리의 品格이 스파타식으로 기를 수 없음을 發見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의 信仰生活이란 孤立해서 維持될 수 없다는 것은 最近에 더욱 고조된다. 制度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外的 牽制 때문이 아니라, 內的 確信 때문에 이루어지는 強한 共同體안에 있는 때라야만 우리의 信仰生活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品格이 研磨될 수 있다는 오늘날의 教育學의 告白은 칼빈의 基督敎의 共同體의 重要性을 強調한 것과 一脈相通 하는 것이 있다.”<sup>93)</sup>

칼빈은 教育을 通하여 教會의 一致를 追求하였고 市民生活에서 政敎가 一致하는 共和政을 시도하면서 理想的 共同體를 建設해 볼 생각을 가졌다. 칼빈이 강하게 내세우는 秩序와 訓練은 墮落된 社會를 改善하고 바른 社會를 만들려는 그의 理想的 共同體를 向한 念願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는 家庭共同體의 重要性을 강조했다. 여기서 칼빈의 教育活動에 나타난 共同體意識의 強調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教會聯合을 위한 칼빈의 熱望

칼빈은 教會의 진정한 統一을 地上教會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教會에 둠으로써 外形的인 團合보다는 內的 團合을 강조한다. 그러나 칼빈은 地上教會의 團合도 慎重히 取扱하면서 正當한 理由없이 教會를 分裂하는 것은 合當치 않다고 했다. 실지로 칼빈은 改革運動에 參與한 同志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한 分裂을 바라보며 教會合同을 위하여 부절히 努力했다는 사실은 그가 신앙동지들에게 보낸 수많은 書信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sup>94)</sup>

칼빈은 당시 英國教會의 大主教인 크렌머(Cranmer)에게 보낸 便紙가운데 “教會聯合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吐露하였다.<sup>95)</sup> 이렇게 칼빈은 教會의 和

93) 문동환, “요한 칼빈의 敎育觀”, 기독교교육, 7호(1965. 3), p. 26.

94) 홍한식, 신학과 신앙(부산: 고신대출판부, 1972), pp. 90-93.

95) Robert Ulich,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p. 121.

平을 위해 힘썼고 1549년에는 스위스의 改革教會를 統一하여 한 教會의 組織을 이루는데 成功했다<sup>96)</sup>. 오늘날 한국의 長老教會는 칼빈의 이 연합정신을 바로 배워야 한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神學을 따르는 教會로서 마땅히 칼빈주의 教會觀에 入脚하여 오늘의 분열현상을 一致로 打開하기 위한 努力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장로교회는 宗教改革 당시 칼빈이 얼마나 教會의 연합을 위하여 手胼하였나 하는 事實을 배워야 할 것이다.

### 2) 要理問答과 教會一致

칼빈의 教育思想은 결코 敎派的인 敎育이 아니었다<sup>97)</sup>. 칼빈은 要理問答을 씌으로써 어떤 특정한 敎과를 세우려는 意圖는 전혀 없었다. 그의 意圖는 혼란되고, 나뉘어진 敎界속에서 서로의 理解를 증진시키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1545년에 發刊한 불란서어판의 要理問答증讀者에게 보내는 便紙에서 要理問答 作成意圖를 分明하게 밝혀주고 있다. 칼빈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信仰하는 모든 信者들의 一體感을 위한 그의 관심을 증거하고 있다. 칼빈은 “사도바울이 强하게 명령하고 있는 믿음의 一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方法으로 努力하는 것은 바른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洗禮와 연관되는 엄숙한 믿음의 告白은 주로 이런 目的을 向해야만 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의한 敬虔한 敎理에 대한 永續的인 一致와 모든 教會들을 위한 單一한 형태의 要理問答이 있어야 되었다”<sup>98)</sup>고 말하고 이러한 일이 成就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그는 이 要理問答이 여러 敎회들의 眞實된 연합을 위해 어떤 貢獻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表現하고 있다. 칼빈은 “나는 이러한 혼란되고 나뉘어진 기독교계 속에서 이 要理問答의 敎理에는 동의를 하지만 空間的으로 널리 나뉘어져 있는 教會들이 相互間에 서로를 認定하는 公的인 證據로서 有用하리라 판단한다”<sup>99)</sup>고 했다. 칼빈은 要理問答의 敎育을 통하여 모든 眞實된 教會의 聯合이 이루어질 것을 熱望한 것이다. 이러한 教會聯合의 觀點은 그의

96) 한 경직, *op. cit.*, p. 32.

97) 김형태, 기독교 敎育의 기초(서울: 총회교육부, 1973), p. 53.

98)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p. 88-89.

99) *Ibid.*, p. 89.



내부에서 빛나는 불꽃과 같이 타고 있었다. 改革者중 어느 누구도 칼빈만큼 꾸준하고 情熱的으로 이 문제에 貢獻한 사람은 없다. 만약 教會의 教育의 使命에 대한 칼빈의 思想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모든 信者들은 要理問答을 크리스찬 親交의 엄숙한 상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要理問答을 發刊하는 主된 理由이다.”<sup>100)</sup>

이와 같은 칼빈의 의도는 後에 充分히 實現되었다. 이 要理問答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또 다른 要理問答이나 信仰 告白書의 作成에 影響을 주었고 改革信仰이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으로 그 영향이 국제적인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 3) 理想的 社會建設

칼빈은 제네바시를 하나의 理想的인 共同體로 만들어 보려고 努力하였다. 그는 人間의 共同生活은 하나님의 말씀의 要求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基督敎的인 政府는 참된 宗教를 保存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곧 그는 神政思想(Theocracy)의 所有者로, 教會와 國家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實現하려는 目的을 이루는 分離된 기관으로 보았다. 비록 두 기관은 분리 되어 있으나 教會와 國家는 하나의 共同目標를 志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도 職責은 다르지만 教會 못지 않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구이다. 칼빈은 국가의 임무를 “하나님에 대한 外的 禮拜를 造成하고 保護하며 健全한 敎理와 教會의 安定을 擁護하며, 우리들의 生活을 人間社會에 적응시키며, 우리들의 行動을 政治的 義에 합하게 形成시키며, 普遍的 平和와 安寧을 養成시키는 것”<sup>101)</sup> 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관심사는 거룩한 사회에 있었는데 이것을 實現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制定하신 모든 制度의 目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教會와 國家는 이 한가지 目的으로 연합되고 一致協同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 *Ibid.*, p. 90.

101) John Calvin, *Institutes*. IV, xx, 2.

칼빈의 教育 역시 教會가 그 主導權을 갖게 되며 國家는 이것이 效果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助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칼빈은 여러가지 法案을 토대로 市民의 宗教敎育을 가능케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合理的 社會建設을 위한 敎育을 제네바에서 實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뜨거운 칼빈의 宣敎熱과 世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主權을 인정하는 確信에서 되어진 것이다.

### 4) 共同體로서의 家庭

칼빈은 역시 共同體로서의 家庭을 重視하였다. 칼빈은 洗禮에 관한 說明에서 信者들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言約的인 관계를 말하면서 어린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言約的인 관계에서 除外되지 않는 것을 말하였다<sup>102)</sup>. 그러므로 信者들과 그들의 자녀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共同體的인 結合은 칼빈의 教會敎育과 家庭敎育의 基礎를 提供하여 준다. 칼빈은 「信仰告白書」 제 15조 洗禮에 관한 告白에서 幼兒洗禮의 可能性을 말하면서 어린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우리의子女들도 우리 主님과의 이러한 關係속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外部的인 포가 그들에게도 다르게 適用되는 것을 確實하다고 생각한다.”<sup>103)</sup>

家庭을 中心으로 한 理論을 정립한 최초의 基督敎 敎育學者인 호레스·부쉬넬(Horace Bushnell)은 루터의 家庭敎育 重視 思想에서 影響을 받았으며<sup>104)</sup> 異質的인 方向으로 나가는 하였지만 부쉬넬은 家庭을 言約共同體로 이해했다는 점에서는 칼빈주의자였다.<sup>105)</sup>

칼빈의 教育活動에서 그가 家庭敎育을 重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教會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條例」나 「教會憲法」등의 규칙 속에서 부모의 책임을 크게 強調하였다. 한 文書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부친들은 그들의子女에 대해 責任을 진다. 違反事項이 있을

102) *Ibid.*, IV, xv, 1, 5, 6.

103)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 30.

104) J. Donard Butler, *op. cit.*, pp. 35-36.

105) 은준관, 敎育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p. 199.

때 별금은 부친들에게서 엄하게 徵收되도록 한다.”<sup>106)</sup> 이와 같이 칼빈은子女들을 訓練시키는 責任은 基督信者인 父母의 의무로 삼았다. 부모들은 그들의子女를 主님의 養育과 훈계 속에서 기르며子女들에게 聖經의 위대한 眞理를 가르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칼빈의 教育活動 속에 나타난 共同體와 그 共同體안에서의 人權의 重要性을 살펴 보았다. 그는 教育을 通하여 教會 共同體의 統一性과 理想的 社會建設을 追求하였고, 家庭 共同體의 教育的 역할을 함께 강조하였다. 오늘의 教會教育은 칼빈의 共同體의인 觀點을 새롭게 適用시켜야 할 것이다.

## 5. 教育을 通한 教會改革과 그 影響

### 1) 教育의 教會論的 根據

칼빈은 教育을 教會論的으로 確立시켰으며 教育을 通해 教會를 改革하려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重要的 것은 教會의 構造 자체를 奉仕와 教育의 기능으로 區分하여 教育行爲를 教會論的으로 合理化시켰다는 점이다.<sup>107)</sup> 칼빈은 教會를 “信者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生命에 이르는 길은 단지 우리가 教會의 母胎에서 孕胎되고 誕生하여 그의 眞理를 먹고 자라며 죽을 肉身의 몸을 벗고 天使처럼 되기까지 그의 引導와 保護를 받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08)</sup> 칼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軟弱性은 우리가 이 어머니의 學校에서 떠나는 것을 許諾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生涯가 끝나는 그 날까지 그의 學校의 學生인 것이다. 머우기 그의 몸을 떠나지는 아무도 赦罪와 救援을 얻을 수 없다.”<sup>109)</sup>

“하나님께서서는 瞬息間이라도 그의 百姓을 完全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教會의 教育을 通해서 그들을 成長케 하시기를 원하신다.”<sup>110)</sup>

106) John Calvin, *op. cit.*, p. 78.

107) 은준환, *op. cit.*, p. 119.

108) John Calvin, *Institutes*, IV, i, 4.

109) *Ibid.*

110) *Ibid.*, IV, i, 5.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教會論에서 教會를 모든 信者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教會속에서의 教育의 價値와 義務를 「基督敎綱要」 4권 1장 4절과 5절에서 암시하고 있다. 칼빈은 教育을 教會論的으로 合理化시켰을 뿐 아니라 教育을 教會改革을 위한 核心活動으로 생각하였다.

### 2) 教會改革을 위한 教育活動

칼빈은 1536년부터 제네바의 改革을 主導해 가면서, 教育을 基礎로 教會改革과 宗教改革을 이루어 보려고 努力하였다. 이미 앞에서 칼빈의 教育活動을 고찰해 보았거니와 그의 제네바 改革運動의 여러 가지 方法과 活動이 教育的인 努力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매우 興味로운 일이다. 칼빈은 이미 「教會의 組織과 禮拜에 關한 條例」에서 제네바 改革을 위해 教育을 強調하였고 「教會憲法」에서는 教會의 직무중 教師의 職무를 말함으로, 教育의 教會論的 確立은 물론 教育을 通한 教會改革의 可能性을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市民들을 위한 宗教敎育의 教材가 必要함을 느끼고 「기독교강요」, 「信仰指導書」, 「要理問答」, 성경주석 등을 發刊하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교 건립을 통해 강력한 宗教改革을 推進시켰다. 이렇게 그의 宗教改革 活動을 눈여겨 보던 그의 改革活動은 教育에 基礎를 두었음을 알 수 있게 되며<sup>111)</sup> 그의 사역에서 볼 때 그는 宗教의 증진을 위해 教育이 그 도구가 됨을 認識했음을 알게 된다.<sup>112)</sup>

### 3) 平信徒와 市民敎育

宗教改革이 平信徒의 地位를 새롭게 確立시켜 주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眞正한 改革은 또한 平信徒로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立場이 었다. 그는 教育을 改革의 도구로 생각하고 眞正한 改革을 위해서는 平信徒와 一般大衆이 重要하다는 것을 깨달은 人物이었다. 칼빈은 指導者의 養成을 힘쓰는 同時에 일반 平信徒의 教育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의 改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改革을 特別히 強調한 것이다. 그가 平信徒의 教育을 위해 努力했다는 것은 그의

111) 김득용, 기독교 敎育학 원론(서울: 총신대 출판부, 1976), p. 72.

112) William Boyd, *op. cit.*, p. 198.

教育活動의 도처에서 發見되어지는 事實이다. 또 그는 일반 대중과 市民 教育에 끊임없는 情熱을 기우렸다. 宗教改革 이후 신교교육에 나타난 特徵 중의 하나는 有能한 市民 養成을 強調한 점이었는데<sup>113)</sup>. 칼빈은 이런 努力을 主導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文書에서 市民養成을 重視하였고, 一般 大衆을 責任있는 主體者로 教育하려고 努力하였다<sup>114)</sup>. 그러므로 칼빈의 平信徒 教育과 市民 教育은 改革의 主體者로서 그들을 養成시키려는 것으로 그 意義가 크다 할 것이다.

#### 4) 칼빈의 教育活動의 影響

칼빈의 教育活動은 적게는 제네바市를 새로운 精神의 支配를 받는 歷史에 길이 남을 紀念碑로 만들어 주었고, 크게는 後世에 또 여러 地域에 改革의 精神을 전수해 주었다. 칼빈주의는 그 가는 곳마다 學校를 세우고, 또한 大衆教育에 대한 強한 刺戟을 주었다. 칼빈 사상은 知力있는 人間을 要求하는 體系이고 이 體系를 研究하고 또한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모든 것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認知的인 訓練을 要하였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큰 寺院의 建立者는 아니었으나, 學校의 設立者는 되었다. 칼빈 아카데미는 大學建立의 模範이 되어 荷蘭의 라이덴(Leyden)대학, 스코트랜드의 에딘버러(Edinburgh), 영국 캠브리지의 임마누엘(Emmanuel)대학, 미국의 마사추셋의 하바드(Havard)대학등이 設立되었다.<sup>115)</sup> 칼빈의 改革主義思想은 스위스와 佛蘭서로부터 독일 荷蘭, 스코트랜드 등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녹스(John Knox, 1505-1572)는 스코트랜드 宗教改革의 指導者로 제네바의 思想을 스코트랜드에 소개하는데 貢獻 하였다.<sup>116)</sup>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진실된 教育과 宗教的 訓練이 實施되는 곳에서는, 宗教改革의 結果들이 保存되고 傳達되었으나, 그것이 결함된 곳에는 그 영향이 減小되거나 사라져 버렸기이다. 여기서 分明히 밝혀지는 事實은 生活과 倫理의 改革은 오로지 基督教 信仰의 바른 教育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113) 김형대, 기독교교육의 기초(서울:에장교육부, 1973), p. 52.

114) 정웅집, 기독교교육 개설(서울:대한기독교 사회, 1976), pp. 45-46.

115) C. B. Eavey, *op. cit.*, p. 164.

116) *Ibid.*, p. 151.

있다는 事實이다. 칼빈의 教育活動은 一般教育 分野에서도 큰 貢獻을 하였다. 그의 活動은 近代教育의 發展에 기여한바 큰데, 近代教育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콰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에 의해 주장된 教育原理들 중에는 그 기원을 칼빈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할 정도이다.<sup>117)</sup> 이런 면에서도 더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 IV. 結 論

### 1. 要約

이상과 같이 칼빈의 教育活動의 內容과 그 意義를 살펴보았다. 칼빈은 그의 탄생을 異國 땅 제네바에 滯留하여, 宗教改革者로 활약하는 동안 눈부신 教育活動을 이루어 왔다. 그는 事實상 教師로서의 生涯를 살았으며, 說教와 聖經講解, 神學講義 등에 많은 勞苦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平信徒의 教育을 위한 많은 著述을 남겼으며, 教會 改革을 위한 많은 法的인 文書 속에서도 教育問題를 強하게 言及함으로써 教育活動의 강한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말년에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建立을 통해 教育活動의 金字塔을 세웠다.

이와 같은 그의 教育活動 속에서 두드러지는 意義 중에서 하나는 그가 聖書教育을 特別 重要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는 여러 곳에서 聖書가 教育의 土台인 것을 역설하였고, 그것을 實踐해 나갔다. 또한 칼빈은 폭넓은 교과과정을 擇하였다. 그는 一般啓示의 領域에까지 人間의 教育이 追求되어야 할 것을 말했으며, 이것을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실현시켰다. 또한 칼빈은 強力한 生活實踐의 教育을 實施하였다. 그의 教育은 삶에서 遊離된 “삶”을 버리고 實踐하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그의 教育에서 共同體를 중요시 하였다. 그는 教育을 통한 教會의 一致와 理想的 社會建設을 위해 努力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教育活動은 그의 宗教改革의

117) *Ibid.*, p. 169.

核을 이루었고, 그의 思想이 들어가는 곳마다, 효과적인 教育이 實現되는 結果를 낳게 하였다. 實로 칼빈은 명실공히 宗教改革의 指導者로서, 제네바시의 精神的 支柱로서, 實生活에 옮겨지는 眞教育의 旗手로서 赫赫한 공헌을 남긴 것이다.

## 2. 結論

이상과 같은 研究를 통해서 칼빈은 훌륭한 教育實踐家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宗教改革을 위해 活動하는 중에 教育의 價値를 크게 認定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教育活動 속에 나타난 教育理念은 오늘의 基督教教育에 새로운 展望을 밝혀 주리라 생각된다.

칼빈이 살고 있던 時代의 문제는 거의 그대로 오늘날의 問題들이며, 어떤 것은 예리하게 부각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宗教改革시대 특히 칼빈의 思想으로 돌아가 거기서 指導와 助言을 求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人物을 研究함으로써 과거의 鬭爭과 成功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의 方向設定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教育의 分野에서 長老教教育의 원형으로서의 칼빈의 活動은 이런 점에서 큰 示唆을 준다고 하겠다. 칼빈이 그의 教育活動에서 보여준 聖書教育의 重視, 폭넓은 교과 과정을 통한 世界와의 對話, 強力한 生活實踐의 教育, 共同體에 對한 강조와 教育을 통해 教會를 새롭게 해 나가려는 努力은 오늘날의 基督教 教育이 疎忽히 하는 問題들에 대한 根源的인 解答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칼빈의 教育的 展望은 오늘의 基督教 教育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燈臺가 되어 줄 것이다.

## 3. 提言

本稿에서 筆者는 칼빈의 教育活動을 中心으로 그 意義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研究는 칼빈의 教育的 理解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칼빈의 神學을 根據로 한 教育神學의 鼎立의 問題와 칼빈의 教育的인 貢獻이 한 가지씩 좀더 깊이 研究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研究를 통

하여 長老教의 基督教 教育의 基礎를 튼튼히 하고, 그 視野를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김득용. 기독교 교육학 원론. 서울: 종신대 출판부, 1976.
- 김정준. "성서학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기념논문집(1965.5), pp. 34-64.
-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기초. 서울: 예장교육부, 1973.
- 노의일. "칼빈의 교육사상이 서구 근대사회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14.
- 문동환. "요한 칼빈의 교육관", 기독교교육, 7호(1965.3), pp. 22-26.
- 신복윤. "기독교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배경(I)", 신학지남 177호(1977.6), pp. 37-46.
- 손인수. 정제철. 서양교육사. 서울: 교육출판사, 1967.
- 오병세. "칼빈주의 교육관", 김남식(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학출판사, 1972.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2.
- 이영희.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1.
- 이종성. 칼빈, 서울: 예장교육부, 1968.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 신교출판사, 1959.
- 정응섭. 기독교 교육 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_\_\_\_\_.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한국신학보 3집(1957.7), pp. 94-104.
- 한경직. "목회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기념논문집(1965.5), pp. 22-23.
- 한철하.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기념논문집(1965.5), pp. 65-83.
- 려순길. "칼빈연구", 미스타 2호(1974.11), pp. 39-51.
- 홍반식. 신학과 신앙. 부산: 고신대출판부, 1972.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Boettner, Loraine.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2.
- Boyd, William.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London: Adams and Black, 1947.
- Bratt, John H., ed.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 Bratt, John H., ed.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Breen, Quirinus.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1.
- Brouwer, A. E. "Calvin's Doctrine of Children in the Covenant: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Ref Rev* 18 (1964-1965), pp. 17-29.
- Butler, J. Donald.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 196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XX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Instruction in Faith* (1537). Translated with a Historical Foreword and Critical Explanatory Notes by Paul T. Fuhrm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 \_\_\_\_\_. *Theological Treatises*. Translated with instructions and note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Coetzee, J. Chr. "Calvin and the school."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pp. 197-225. Edited by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Cubberley, Ellwood P. *Th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Houghton Hifflin Company, 1920.
- Dakin Arther. *Calvinism*. 이병섭역, 칼빈주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 De Jong, Norman. *Education in the Tru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9.
- De Jong, Peter Y. "Calvin's Contribution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 (1967), pp. 162-201.
- Dowey, Edward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1.
- Eby, Frederick. *Early Protestant Educator*. New York: McGraw Hill Company, 1931.
- Forstman, H. Jackson. *Word and Spirit: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 Hall, Charles A. *With the spirit's sword: the drama of spiritual warfar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Richmond: John Knox, 1968.

- Holwerda, David E.,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Hunter, A. Mitchell. *The Teaching of Calvin*. Los Angeles: Fleming H. Revell Co., 1950.
- Jansen, John Frederik.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7.
- Jarman, T. *Landmark in the History of Education*. London: Gresset Press, 1951.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3.
- Mackinnon, James. *Calvin and Reformation*.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Inc, 1962.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Meeter, H. Henry.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김진홍, 박윤선 공역, 칼빈주의. 서울: 영음사, 1963.
- Ni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Parker, T. H. L.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7.
- \_\_\_\_\_.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 \_\_\_\_\_. *Portrait of John Calvin*. 김재준역, 칼빈의 모습.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Reid, W. S. "Calvin and the Founding of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November, 1955), pp. 1-33.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9.
- Scott, William A. *Historical Protestantism: An Historical Instruction to Protestant The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 Singer, C. Gregg. *John Calvin: His Root and Fruit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 Ulich, Robert.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영음사, 1972.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ndon: Oliver and Boyd, 1959.

\_\_\_\_\_.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7.

Wendel, Franc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s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lated by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1963.

## 누가研究와 '초기공교회'의 問題

이 상 규  
(본 연구소 연구원)

서론(문제의 소재, 목적)

- I. 현대신약학에 있어서 누가 연구
  - II. 누가와 '초기공교회'의 문제
  - III. '초기공교회'의 신학적 문제
  - IV. '초기공교회' 비판
  - V. 결 론
- 참고문헌

서 론

(문제의 소재, 목적)

현대 진보적 신약학자들간의 가장 큰 爭點이 되고 있는 문제는 누가의 2부작인 「누가—행전」(Luke-Acts)<sup>1)</sup>에 나타난 누가의 神學에 관한 토론이다.

이 토론은 195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문제를 안고 세계신학계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초대 기독교 共同體의 압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의 좌절로 인하여 발생한 제 현상에 대해 역사 과학적 해답을 시도하려는 소위 '초기 공교회'(Early Catholicism)<sup>2)</sup>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

1) 「누가, 행전」 저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지만 동일저자로 보는 견해가 절대적이다. 누가—행전 두책의 구조, 용어, 사상, 공동수신인들의 특징에 대해 철저히 논구한 책은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Macmillan, 1961)이다.

2) 'Early Catholicism'는 '초대공교회', '초기카타리시즘' 등으로 번역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초기공교회'로 번역하였다.